

Issue Comment

2018. 1. 15

통신서비스

팽팽히 맞서는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



통신서비스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제6차 회의서 보편요금제 논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지난 번에 이어 12일 제6차 회의에서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감. 정부와 시민단체는 데이터 서비스의 보편화와 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제시된 보편요금제 도입의 타당성을 주장. 반면, 통신사업자들은 최근 동영상, 게임, SNS 위주의 데이터 소비가 보편적 서비스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도입에 반대

팽팽한 보편요금제 논의, 오는 26일 제7차 회의에서 결론

시장 이해관계자들간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오는 26일 제7차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 7차 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수정 및 보완 사항과, 보편요금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대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 보편요금제 논의 후 남아 있는 주제는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 기본료 · 인가제 등 요금구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할 계획

시사점

서로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26일 열리는 7차 회의에서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임. 다만, 정부가 통신사들에게 보편요금제를 도입하지 않을 시 대안을 요구한 만큼, 단말기 완전자급제 범제화 등 새로운 대안이 부각될 가능성 존재. 결국 최종 결론은 국회의 입법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고려할 때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긴 어려울 전망. 다만, 실제 도입 여부와는 달리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에 대한 이슈가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만큼 보편요금제에 대한 회의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지지 부진한 주가 흐름 전망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